

# 자연이 들어앉은 건강한 우리집

## ■ 친환경 실내 인테리어 꾸미기

몇 년 사이 황사, 새집 증후군 등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면서 실내 인테리어 테마로 '웰빙'이 주목을 받고 있다. 또 인테리어 용품이 유독물질을 함유하지 않고 자연친화적이고 건강지향적인 제품들로 바뀌고 있다. 정신과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자연주의 인테리어로 삭막한 도심에서 자연을 느껴보자.

### 거실·침실·욕실 기능과 특성 맞는 식물 배치해야 습도 조절 뛰어난 식물성 천연 벽지 산림욕 효과

◇식물 하나로 연출하는 그린 인테리어=녹색식물을 이용한 친환경 실내 인테리어로 스트레스 해소와 함께 정서적 안정감을 찾을 수 있다. 또 천연 공기청정기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 단 꽃가루가 날리거나 향이 강한 꽃은 피하는 것이 좋다.

향이 좋은 처자나 라벤더는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주고, 장미·카네이션·아네모네 등의 꽃은 식욕을 북돋운다. 로즈마리는 기억력 증진에 좋다. 안시리움·싱고리움·테이블야자 등은 천연 공기청정기와 다름없으며, 모든 화분이 자동 가습·제습 기능을 한다.

거실, 침실, 공부방, 욕실 등 주거공간 별로 그 기능과 특성에 맞게 식물을 배치해야 한다.

가족의 생활공간인 거실은 잎이 무성하고 적당히 큰 반 음지식물을 놓는 게 좋다. 아레카야자, 고무나무, 송오브인디아 등이 좋다. TV나 오디오, 책장 근처에 작은 관엽식물 화분이나 볼꽃을 두면 화사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다.

침실에는 오래 봐도 눈이 피로하지 않은 작은 연한 녹색 계열 화분이 좋다. 또 공기 정화 기능이 뛰어나고 은은한 향이 있는 보스턴고사리, 파키라, 호접란, 포인세티아 등이 좋다.

아이들 방에는 활기 넘치는 컬러 식물이나 푸른 잎이 많은 게 좋다. 로즈마리, 라벤더 등 허브류 식물을 놓으면 기억력 증진과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

◇벽지 하나로 친환경 인테리어 연출=집안 분위기를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실내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벽지를 천연 소재로 바꾸는 것이다.

천연 벽지는 소나무, 닳나무, 향나무, 녹차, 쑥, 황토, 옥, 참숯 등 천연 재료를 포함한 벽지를 말한다. 천연 벽지의 가격은 평당 1만~5만원 대로 비교적 비싼 편이다. 하지만 탈취와 항균, 습도 조절, 원적외선과 음이온 방출 등의 다양한 기능이 있다. 특히 나무 성분을 넣은 식물성 벽지는 포톤치로 머리를 맑게 하는 등

산림욕 효과도 볼 수 있다.

천연 벽지는 도배 방법도 일반벽지와 다르다. 화학 접착제 대신 벽지 전체에 물을 바른 뒤, 벽의 가장자리에 천연 풀을 발라 붙이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없다.

벽지를 바꾸는 것이 번거롭고 부담스럽다면 벽지용 페인트를 이용해도 된다. 비용도 덜 들고 시간절약도 할 수 있다. 벽지용 페인트의 가장 큰 장점은 벽지를 뜯어내지 않고 그 위에 덧칠만 하면 된다. 또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적 소재의 페인트(1만원대부터)가 다양하게 출시돼 아이들과 함께 페인트칠을 해도 무방하다. KCC의 '숲으로'(5만원대) 가정용 친환경 페인트로 벽지나 콘크리트 벽면에 바로 사용할 수 있다.

간단하게 한지나 포인트 벽지를 활용해도 좋다. 포인트 벽지는 문양이나 색상이 도드라지는 것을 선호했던 지난해와 달리 오래 보아도 질리지 않는 비교적 단순한 포인트 벽지가 인기를 끌고 있다.

아이들 방에는 구름, 꽃, 동물 등의 문양을 활용한 시트지(1천원대부터)를 활용해도 포인트를 주는 것도 방법이다.

◇친환경 소품으로 마무리=도배와 페인트 칠은 엄두도 못 내면 소품을 활용하면 된다.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는 차갑게 느껴지는 금속성 액자 대신 원목 액자로 바꾸는 것이다.

숲 장식(6천원부터)을 활용해도 좋다. 미세한 구멍 속에 살고 있는 각종 미생물이 유해한 세균이나 악취를 빨아들여 공기 청정 효과가 뛰어나다.

특히 애완동물을 키울 경우 애완동물에 기생하는 진드기나 특유의 냄새를 없애 준다.

도자기의 원료인 고령토나 점토 등으로 만든 점토벽돌이나 점토타일을 침실, 거실, 현관 등에 놓아두면 공기 정화 및 습도 조절 효과까지 볼 수 있다. 천연 흙색이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고 가격도 2만원대(1박스·72장)로 저렴한 편이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거실에 나무 느낌을 그대로 살린 나무탁자를 배치하면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 자연주의 인테리어 효과를 볼 수 있다. 사진은 어머니와 어린이가 거실에 놓인 나무 탁자에서 책을 읽고 있는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나무로 만든 우드 블라인드



현관 입구의 응기화분

## 배수 가장 중요...햇볕 잘 들면 음지식물 피해야

### ■ 베란다 친환경 정원 만들기

사람이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집 안에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베란다나 실내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자그마한 정원을 꾸미는 것도 한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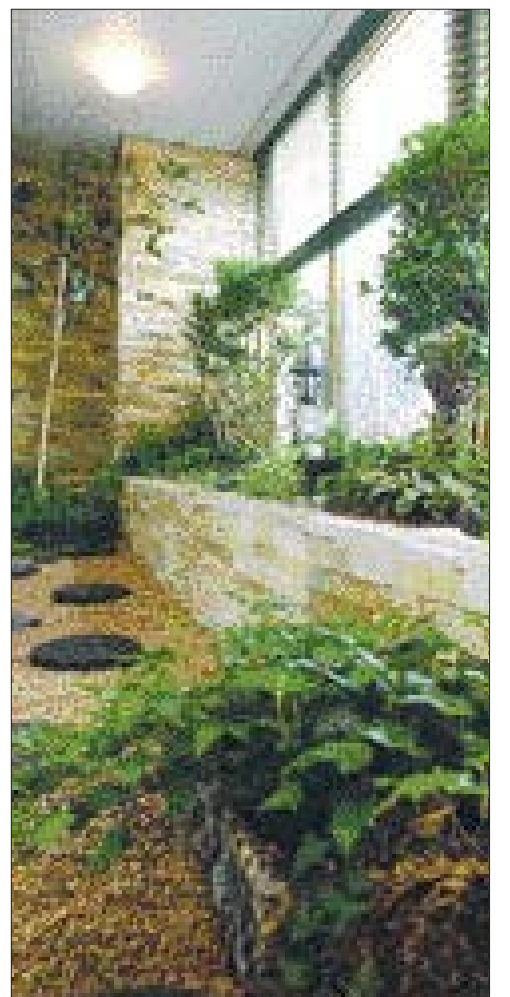
실내 미니정원을 만들 때 유의할 점은 배수와 나무 종류다. 배수가 원활하지 않으면 식물이 쉽게 죽고 벌레가 생기기 때문이다. 또 식물은 일조량을 파악한 후 선택하는 게 좋다. 햇빛이 잘 든다면 그늘식물이나 음지식물은 피해야 한다. 대개 잎이 넓고 생명력이 강한 관엽식물이 좋다.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직포, 배수용 깔판, 분무기, 모종삽, 마사, 영양토, 방수용 비닐, 투명호스, 정원용 가위, 식물 이음표 등이 필요하다. 자연석, 인조벽돌 등을 활용해 정원의 경계를 구분하는 것도 좋다. 조경자재 가게에서 구한 배수용 깔판을 깔 뒤 그 위에 흙이 들어가지 못하게 부직포나 모기장 등 물 빠짐이 좋은 천을 덮는다. 토양은 벌레가 생기는 것을 감안해 무균성 피트머스 and 펠라이트를 섞어준 다음 마사토와 적옥토를 배합하면 된다.

흙을 넣을 때는 언덕과 구름을 감안해 높낮이를 조절, 중간에 허전한 부분에는 자연석을 배치하면 된다.

식물은 건조한 토양에서 자라는 것들은 높은 곳에 배치하고 습한 곳에서 자라는 식물은 낮은 곳에 심는다. 또 식물 크기를 고려해 큰 키 식물은 뒷면, 작은 식물은 앞쪽에 배치한다. 꽃피는 시기를 고려해 배치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다. 나무릴 단계로 보기 흉한 부분은 이끼 등으로 가려주고 돌 틈에서 자라는 식물들은 생명토 등에 식재하는 것이 좋다.

실내 습도 유지를 위해 초음파 안개 모터를 설치한다. 단 물에 닿지 않도록 꼼꼼하게 설치해야 누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도움말 : 들꽃세상 김성민 대표>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광주일보 창간 57주년을 축하합니다.

자연속으로 구경

구례교 | 구례교사리 | 구례삼거리 회암 산-계수 | 구례삼거리 지동리(현정), 구례새마을학교 이서향 최수호